



소개

르 샬레

스위스 알프스의 전통 샬레에 깊이 빠져드는
진정한 몰입의 순간

주요 특징:

- 수세기 동안 자연과 함께해 온 워치메이커들의 터전인 발레드주의 진정한 환경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
- 19 세기 샬레의 복원을 통해 미래 세대를 위한 문화 유산을 보존합니다
- 예거 르쿨트르의 방문객을 위한 진귀하고 독특한 경험을 선사합니다

예거 르쿨트르가 복원 과정을 거쳐 아름답게 거듭난 발레드주 중심부의 전통 농가 건물인 르 샬레(Le Chalet)를 공개합니다. 예거 르쿨트르는 창립 초기부터 모든 워치메이킹 기술을 한 지붕 아래 통합하겠다는 선구적인 개념을 확립한 매뉴팩처였습니다.. 이 독특한 구조를 바탕으로 메종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끊임없이 탁월한 워치메이킹을 탐구하여 혁신을 도모하고 탁월한 수준의 품질을 보장했습니다.

르 샬레는 단순한 복원 프로젝트를 뛰어넘어 예거 르쿨트르의 워치메이커들이 거의 2 세기 동안 자연과 공존하며 작업해 온 평화로운 발레드주를 만날 수 있는 환상적인 여정을 선사합니다. 워치메이커들은 이처럼 특별한 풍경 속에서 주변의 자연에서 영감을 받아 시계를 제작하며 메종의 유산과 지역의 전통 사이 깊은 유대 관계를 촉진했습니다.

예거 르쿨트르 매뉴팩처의 보금자리인 르 상티에를 포함하는 르 세니(Le Chenit) 지역과의 파트너십으로 이루어진 이번 복원 작업은 역사적 건물을 보존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. 르



샬레는 자연스러운 모습을 간직한 숲과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초원으로 둘러싼 한적한 휴양지로, 시대를 초월한 조화를 품은 발레드주를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. 고요한 자연 속에서 전통과 장인정신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이곳은 진정성이 느껴지면서도 일상에서 벗어난 듯한 분위기가 감도는 공간입니다.

아름답게 복원된 전통을 만나는 작은 우주

몽 탕드르 서쪽 해발 1,360m 지점에 위치한 르 샬레는 19 세기에 지어진 고산 목초지에 위치한 샬레를 뜻하는 *샬레 달파주(chalet d'alpage)*를 복원한 곳입니다. 이곳 샬레는 현재 르 세니 지역의 소유이지만, 과거에는 평소 계곡에서 지내다가 여름이 되면 프랑스어로 *알파주(alpages)*라고 부르는 고산 목초지로 소를 몰고 이동했던 농부가 이곳에 머물렀습니다. 현지 방언으로 작은 방목지를 의미하는 *쇼(chaux)*에서 유래한 '레 쇼미유(Les Chaumilles)'로 불리는 마법 같은 장소에서는 르 상티에와 주(Joux) 호수가 내려다보입니다.

비바람으로 인한 기반 석회암의 균열을 의미하는 라피아즈(lapiaz)가 돋보이는 유서 깊은 초원과 자연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한 소나무 숲에 둘러싸인 르 샬레는 계곡에 살던 농부들이 처음 소 떼를 몰고 올라온 시기부터 변함없이 전통적인 삶의 리듬을 이어 오고 있습니다. 전통에 따르면 이곳에서는 직접 소의 젖을 짜고, 그 자리에서 치즈를 제작했습니다.

쥐라 지역의 건물들이 보통 그렇듯이, 르 샬레 역시 원래는 마구간, 헛간 및 치즈 생산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. 과거의 유산에 따라 본래의 목재를 꼼꼼히 세척하고 복원하였으며, 일부 목재를 더해 완성된 탁 트인 중앙의 헛간은 식사와 오락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며, 1 층과 2 층 사이에 자리 잡은 포근한 라운지 공간에서 이곳을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. 심플하면서도 세련된 장식은 공간의 매력을 온전히 드러냅니다. 중심부에는 신선한 우유를 가열해 치즈로 굳히는 커다란 가마 위로 피라미드 모양을 이루는 전통 굴뚝인 *튀예(thuyé)*가 보존 및 복원을 거친 고풍스러운 나무 구조로 아름다운 매력을 발산합니다. 과거에 신선한 치즈를 건조시키던 샬레의 오래된 유처리실은 주방으로 탈바꿈하여, 계곡의 전통 레시피와 바슈랭(Vacherin) 치즈와 같은 제철 재료에 중점을 둔 특별 메뉴를 선보입니다.



샬레의 북동쪽과 남서쪽 외관은 발레드주 지역 전통 건물에서 혹독한 겨울 날씨와 강풍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목재 타일인 *타바이용(tavaillon)*으로 마감되었습니다. 싱글을 수작업으로 커팅하고 배치하는 이 기법은 15세기부터 스위스 쥐라 지역에서 개발되어 여러 세대에 걸쳐 갈고 닦아 온 유서 깊은 기술입니다. 지역 장인들은 주변 숲에서 공수한 목재를 사용해 오래된 타일을 새로운 타바이용으로 완전히 교체하여 소중한 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탁월한 노력을 보여주었습니다.

발레드주의 영혼을 만나는 순간

르 샬레에서 보내는 시간은 소박하고 단순한 감각과 지극히 세련된 매력이 조화를 이루는,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여정이자, 일상에서 벗어나 발레드주의 영혼, 문화, 역사, 그리고 그곳 사람들과 깊이 연결되는 귀중한 경험입니다. 방문객들은 발레드주의 진정한 세계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. 이곳은 16세기 중반, 프랑스에서 망명한 피에르 르쿨트르가 정착한 곳입니다. 그로부터 열 세대가 흐른 뒤, 그의 후손인 앙투안 르쿨트르(Antoine LeCoultre)가 이곳에 위치메이킹 아틀리에를 세웠고, 그 공방은 훗날 예거 르쿨트르라는 전설적인 매뉴팩처로 성장하게 됩니다. 야생의 자연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매뉴팩처가 위치한 르 상티에에서 차로 10분도 채 걸리지 않는 이곳은 지극히 평화롭습니다. 소에 달린 방울 소리, 소나무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 소리, 때때로 들려오는 사슴 무리의 울음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릴 따름입니다.

르 샬레는 오직 예거 르쿨트르의 초청을 받은 게스트만이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입니다. 예거 르쿨트르는 이 공간의 물리적 복원을 지원할 뿐 아니라, 매뉴팩처를 방문한 방문객을 맞이하는 특별한 장소로 새롭게 탈바꿈시켜 미래 세대를 위해 유서 깊고 소중한 공간을 보존하고자 합니다.



예거 르쿨트르 소개 –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™

1833년부터 혁신과 창의성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과 발레드주의 평화로운 자연환경에서 영감을 받은 예거 르쿨트르는 컴플리케이션에 대한 전문성과 메커니즘의 정확성으로 독보적인 워치메이커로 활약하고 있습니다.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™로 알려진 매뉴팩처는 1,400 개 이상의 다양한 칼리버 제작을 통해 독창적인 정신을 끊임없이 표현해 왔으며 430 여 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. 그랑 메종의 워치메이커는 190 여 년 이상 축적된 전문 지식과 열정을 바탕으로 정밀한 최첨단 메커니즘을 디자인, 제작, 마감, 장식하며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고 언제나 시간의 흐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. 180 여 개의 기술력이 한 지붕 아래 모인 매뉴팩처에서 기술적 독창성과 미적 아름다움, 절제된 세련미가 결합된 파인 워치메이킹 작품을 탄생시킵니다.

jaeger-lecoultre.com